모처럼의 저녁식사

지난 주 식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 생긴 중국 음식점에 가기로 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갔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한국사람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점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큰 기대감을 앞세워 늘 그래 왔듯이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시켰다. 이 음식점은 맛있을 것이라는 좋은 기대 때문이었다. 요리 2가지와 곱빼기 자장면 3그릇을 시켰다. 자장면은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정작 기대를 가지고 시킨 요리 2가지가 나왔을 때에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랬고 소스는 맛이 있었으나 고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른 식구들도 나와 함께 장단을 맞출 것 같아 다른 집보다 정말 맛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저녁을 먹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닌 이유는 소스는 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음식을 소스 맛으로만 먹는가? 고기도 튀김도 맛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날도 중국 음식점 식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 밤 먹은 중국 음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점은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난 50년을 돌아보니 먹으러 가곤 했던 중국 음식점들마다 나에겐 모두 이유가 있었다. 어느 집은 소스가 맛이 없고, 어느 집은 고기가 너무 두꺼웠으며, 어떤 때는 껍질만 있고 고기가 없는 집, 어느 곳은 가격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쌌다. 지난 세월동안 가장 맛이 있었던 중국 음식점은 유치원 때에 살던 동네 저쪽 편에 있던 곳이다. 그 중국 음식점에서 가지고 온 자장 소스에 집에서 만든 밥을 비벼 먹은 것이었다. 평생 동안 어릴 때 그 맛과 다른 음식점들을 비교하고 있었으니 어떤 집을 가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때 생각을 버리고 각 집 마다 최선을 다해 만든 음식임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먹었다면 얼마나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똑같은 불만족과 불평의 이유들이 나의 입맛 보다 앞섰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나의 먹는 기쁨을 앗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과 추억만으로 범벅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고정이 되어 50년을 스스로를 지켜왔다면 개인의 역사책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불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이다. 늘 먹어도 새로운 맛과 영양이 넘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것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은혜 받는 일에 결코 뒤지지 말아야 한다.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도 또 다시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으면 되는 것이다.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으면 그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에스겔 36장 26절)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기 원하신다. 어떻게 할까? 오늘도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맛을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그 음식점은 그 날 내 입에 맞지 않은 것이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잘나가는 곳이었다.